

2005년에 실시한 제 4회 김영인 문예공모에서 최우수 상으로 선정된 수상작과 시 부문 응모작 중 좋은 평을 받은 시 한 편을 실었다. 2005년 문예공모 작품은 www.positive.or.kr에서 볼 수 있다.

10월 송정 바닷가에서(2)

글 | 이 순 우 · 김영인, 커럼

나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녀에게 절대로 지지 말라고 당부해 보았다. 이렇듯 쉬어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소리쳐 보았다. 적어도 아직도 못 다한 꿈이 많은데 그것을 다 잡고 가버려선 절대로 안 된다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고 싶어하던, 어떤 식으로든 미정이의 지난 추억에 눈물과 웃음으로 동참했던 그리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우리 모두는 간만에 보는 반가움이 이런 병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워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아무도 못 보는 계단 끝 난간에서, 화장실 안에서, 병원입구의 등나무가 휘어진 나무의자에 기대어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나타났다.

모든 시간의 단위가 단 1초라도 기적을 속삭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아무 맛도 모르게 삼켜대던 자판기 커피도, 습관처럼 입에 물던 담배 연기 속에도, 오고, 가고, 기억하고 잊혀지던 모든 사람들의 애절한 관심사는 미정이가 되어 있었다. 손 써볼 수 없는 절망과 그저 결말이 오는가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답답함이 이틀째 밤을 넘기고 있었다.

일요일 낮부터 불길한 징조가 보였다. 도대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를 모호한 의료가구들이 그녀의 병실 안에서 하나둘씩 빠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차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간호사에게 묻지 못했다. 어떤 대답이 들

아올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들 미정이의 침대 밑으로 모여들었다. 아마도 무슨 지시가 있었나보다. 그외중에도 나는 코웃음을 쳤다. 마지막이라니... 결코 그럴 리 없다고 나름대로는 자신만만했다. 미정이는 이렇게 생을 접을 사람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나이기도 했다. 한가로이 복도를 거닐어 보았다.

밤 11시 30분.

병실 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 의사 두 명이 황급히 뛰어 들어 가더니 또다시 나오고, 그러길 두어 번 정도를 반복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허겁지겁 하나둘씩 미정이의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확실해 지는 순간이었다. 아득한 형광등 불빛과 연두색의 복도색상이 오버랩 되더니 현기증

이 돌면서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던 말인가. 알 수 없는 분노가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라도 남아 있다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도 싶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무렵... 누군가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이제 곧 영안실로 옮길 겁니다. 그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야죠.”

나는 어설플게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보내고, 훗하니 넓은 병실로 들어섰다. 처음으로 미정이는 자유로워 보였다. 태어날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긴 머리칼과 가녀린 어깨만을 드러낸 채, 포근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녀가 더 이상 내게 전화할 수도 없고 둘이서 백주잔을 앞에 놓고 수다를 떨 수도 없고, 같이 여행가자고 하던 약속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

다. 더 이상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 그녀를 인정할 수도 없었다. 남자간호사와 의사가 나타나더니 이젠 그만 나가달라고 했다.

‘아직 작별인사도 다 못했는걸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내가 그녀에게 온전히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녀를 처음 만날 때처럼 미정이는 깊은 침묵으로 나를 떠난 것이다.

장례식 날은 날씨가 무척이나 흐렸다. 쌀쌀한 바람이 공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많은 영정 사진들 속에 그녀는 가장 어리고 가장 아름다웠다. 허무하게도 몇 개의 번호로 탈바꿈한 미정이의 마지막 모습은 그나마 20인치 안팎의 모니터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었다.

“오빠, 난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도록 싫어. 너무 싫단말이야.”

심하게 도리질을 하며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이제 미정이는 바라던 대로 다른 사람과 같게 되었다. 비로소 편견이 없는 세상 속으로 서둘러 떠난 것이다. 슬펐지만 슬퍼할 일이 아니기도 했다. 지난 세월을 어디에 어떻게 다 담고 왔던 길 되돌아갈 건지, 주고받았던 선물 같은 기억들을 나누어주고 떠나보낼 수 있을는지... 하지만 이제는 웃고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녀이기에 나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계절이 주는 위기감과 맞물려 마주치는 눈빛마다에 잠겨 있는 슬픔을 보는 일이란, 뱃속까지 아려오는 고통이었다. 그녀를 먼저 보내고, 뒤에 남겨진 우리들은 저마다 비정이와의 추억에 잠겨 있었지만, 나보다 더 힘들 상대방을 의도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리고 보면 살고 죽는다는 게 참으로 닳았다' 라는 말을 던졌을 때도, 나는 수긍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그 목소리의 주인공마저 바라볼 힘도 없었다. 자신이 사는 도시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혹은 일하다 잠시 쉬는 중이라면서 내게 힘내라는 공문자를 보내주곤 했다. 그들의 발치땀 흘려 털고 힘을 내라 했지만 나는 박연히 두려웠다.

비정이라도 알고, 나도 알고, 하지만 비정이의 죽음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나는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어떻게 그녀가 이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내입으로 진해준단 말인가... 산사람은 어떻게라도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믿는다. 맞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살아간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임을 이제는 알겠다.

1년이 훌쩍 지났다. 다시 찾은 송정바닷가.

그날 그녀를 한층의 재로 돌려 보내고 우리 일행은 이곳을 찾았었다. 비정이를 잊기 위해 혼자서 여행도 다녀보고, 내 뽕 속의 그녀 사진도 큰 밥 먹고 지웠었다. 비정이는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조차도 친구들 앞에 선 허리를 곳곳이 세우곤 괜찮다고만 했었다. 그녀가 식구들이 돌아간 후에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고 한다. 그녀의 이모부가 내게 말했다. 연락할 길이 없어 딱딱하 비정이 헤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보고 있자니 내가 '번이' 더럽다.

지 밀리 바닷사 한마리가 물가에 내리앉는 모습이 회색의 캔버스 위에서 하얀점을 찍어내는 모습과 흡사하다. 파도는 바로 내 코앞에서 비릿한 파내를 날리고 공중으로 흩어지기 싫어 반복했다.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 비정이의 마지막 영혼이 쉬고 있는 그곳에 내 눈길이 다다르자 알고 있었던 눈물이 쏟아졌다. 더없이 행복한 낯을 보내고 있을 비정이가 일



터인데 어쩌면 나 혼자만이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결국은 시간이, 세월이, 인간의 망각이 어느새 그녀를 과거 속에 놓고 오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수행선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르는 것 만으로도 요원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듣지 못했다. 아마도 자기가 없어도 흔들리지 말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테지. 비정이 특유의 생갈 거티고는 미소와 함께... 내게 그녀의 바람대로 열심히 살고자하는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나는 그녀의 응원 덕분이요, 남은 생전에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자주 말하지 못했던 뒤늦은 후회 때문이다. <끝>